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0

이광수의 <유정>에 나타난 칸트적 윤리의 양상

이 경 재*

요 약

이 글은 기본적으로 〈유정〉의 최석이 보여주는 의지와 열정 혹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칸트가 주장한 윤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칸트는 윤리가 '자유로워라'라는 정언명령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며, 공동체의 규범이나 행복주의(공리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규범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행위할 때 그것은 타율적이어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도 행위는 신체적 욕구나 타자의 욕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므로 자유가 아니다. 〈유정〉의 최석은 공동체의 규범이나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칸트적 윤리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최석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규율, 이른바 공동체의 도덕을 거부한다. 그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조선을 떠나면서까지, 정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석은 애욕과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통해 행복주의(공리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칸트적 정언명령에도 충실하다. 칸트가 공동체의 도덕과 더불어 비판한 또 하나의 항목은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윤리를 생각하는 견해이다. 이 관점은 자연적 인과성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로워라'는 정언명령에 따른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최석이 자신의 애욕과 벌이는 투쟁은 '자연'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최석은 정임에 대한 애욕을 이겨냄으로써 이 투쟁에서도 승리한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칸트적 의미의 윤리를 구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한 것이다. 〈유정〉의 과도한 윤리적 모습은 〈무정〉에 나타난 과도한 공동체 지향성의 뒤집어진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무정〉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리며 친소관계를 반복하던 형식, 선형, 영채 등이, 결국 작품의 마지막 이르러 형식의 연설에 감격하여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무정〉의 결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나며, 진정한 자유와 인격은 공동체(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헤겔을 연상시킨다. 〈무정〉이 결국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무화를 통해 공동체라는 절대적 지향점을 덩그러니 남겨 놓았다면, 〈유정〉에서는 본능이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윤리적 존재를 시베리아 원시림 속에 강렬하게 남겨놓은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헤겔에서 칸트로의 변모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다.

주제어: 이광수, 유정, 칸트, 윤리, 공동체, 자유, 자연

목차

1. 서론
2.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거부
3. 자연이 아닌 자유
4. '무정'에서 '유정'으로 - 헤겔에서 칸트

1. 서론

이광수의 〈유정〉은 193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77회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유정〉은 이광수가 "萬一 내 作品中에 後世에 끼쳐질 만한 것이 있다면 이 「有情」과 「가실」이라고. 그 亦 猥濫한 말이나 外國語로 번역될 것이 있다면 그는 亦 「有情」

이라고 생각해요."[1]라고 말할 정도로 작가의 자부심이 대단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무정〉이나 〈흙〉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유정〉에 대한 연구는 주인공 최석에 대한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유정〉의 대부분이 최석의 일기와 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인물이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초점화의 대상은 늘 최석인 서술구조와 관련된다. 서사구조상에 있어서나 의미론적 측면에서나 최석은 그야말로 이 작품의 중심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최석이 보여주는 의지와 열정 혹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그 대립 속에서 '정신의 고양'이나 '민족의 강조'라는 의미를 추출해내고는 하였다.

'정신의 고양'이라는 맥락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혜경은 최석이 "남정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갈망하는 영혼의 고양된 에너지"[2]에 사로잡혀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최석이 벌이는 내적 투쟁은 "자연에 대한 이성의 통제를 통해 주체의 도덕적 자기완성에 이르려는 근대문명의 계몽적 프로젝트를 닮아 있다"[3]고 주장한다. 윤홍로는 〈유정〉을 이광수 문학의 3기, 즉 영(靈)의 구원을 모색하는 종교적 경향의 시기의 맨 앞에 오는 작품으로 이해한다.[4] 이것은 이광수의 "이상주의적인 애정 경향을 종교적으로 심화하려는 정신지상주의로 지양 상승하는 작품이다."[5]라는 조연현의 관점에 이어진 것이기도 하다. 신영미는 최석의 "죽음은 열정과 이지, 그리고 욕망과 규범을 육화하여 절대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1) 이광수, 『이광수 전집』 10권, 삼중당, 1974, 524면.
2) 박혜경,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계몽의 기획:이광수의 〈유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3집, 2007, 247면.
3) 위의 논문, 248면.
4) 윤홍로, 「춘원 이광수와 〈유정〉의 세계」, 춘원연구학보, 2008, 164면.
5)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8, 248면.

기완성의 기획"[6]이라고 설명한다. 강헌국은 〈유정〉이 욕망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찰하여 남녀 간의 연애를 극복하고 인류애로 나가는 길을 모색했으며, 최석은 "욕망이 제거되어 순수하게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된 사랑"[7]을 입증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유정〉을 춘원 문학의 기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과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서영채는 최석은 "죄 없는 책임의 실천자"[8]로서, 주인공 최석과 소설의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창조자 이광수가 원하는 것, 즉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 고양"[9]이며, 그것을 통해 "절대 주체로서의 민족"[10]이 도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서희원도 〈유정〉의 주인공들은 "공동체의 경계를 벗어난 시베리아에서 죽음을 맞지만 그들의 영혼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 민족과 결합하며 간통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불멸의 사랑이라는 관념을 획득"[11]한다고 강조한다. 임보람은 〈유정〉의 서사가 "공동체를 향한 계몽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추동하는 저변의 원리란 가장 사적인 욕망의 발로"[12]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최석의 서사가 목적한 바는 그의 무고한 죽음이 공동체에 야기할 도덕적 감화 또는 회개라 할 수 있을 것"[13]이라고 하여 공동체 지향적인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다.[14]

---

6) 신영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낭만성의 관련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9, 123면.
7) 강헌국, 「이광수 소설의 인류애」, 『현대소설연구』 57집, 2014, 226면.
8) 서영채, 「죄의식, 원한, 근대성: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 52면.
9) 위의 논문, 53면.
10) 위의 논문, 56면.
11) 서희원, 「공동체를 탈주하는 방랑과 죽음으로 귀환하는 여행」, 『한국문학연구』 40집, 2011, 225면.
12) 임보람, 「〈유정〉에 드러난 사랑과 욕망의 문제 연구」, 『우리말글』 69집, 2016, 228면.
13) 위의 논문, 246면.
14) 이외에도 〈유정〉에 나타난 작가 이광수의 자전적 언술 행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이 글은 기본적으로 최석이 보여주는 의지와 열정 혹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칸트가 주장한 윤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신의 고양'이나 '민족의 강조'도 유의미하게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칸트는 윤리가 공동체의 규범이나 행복주의(공리주의)를 부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신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는 '자유로워라'라는 정언명령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유란 다른 데에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 자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규범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공동체의 규범을 따른다면 그것은 타율적이어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여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도 행위는 신체적 욕구나 타자의 욕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므로 자유가 아니다.[15]

자전적 삶과 관련지어 해석(서은혜, 「이광수의 상해·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집, 2016, 223~256면)한 연구, 〈유정〉을 통해 근대 남성의 사랑 방식을 살펴본 연구(임선애, 「근대 남성의 사랑 방식:이광수의 〈유정〉, 『인문과학연구』 8집, 2007, 161~179면), 〈유정〉을 톨스토이의 『부활』과 관련시킨 연구(김진영,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이광수와 톨스토이」, 11~49면), 정신분석관점에서의 연구(김용하, 「신경증자의 발견과 탈 나르시시즘 주체의 구제」, 『국제어문』 49집, 2010.8, 113~136면), 질병 모티프를 중심으로 〈유정〉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살펴본 연구(김소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이화어문논집』 27집, 2009, 117~138면), 이주와 정을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이언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집, 2015, 109~133면) 등이 있다.

15) 가라타니 고진, 『윤리 21』, 송태욱 옮김, 사회평론, 2001, 6면. 가라타니 고진은 이후에도 "도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덕은 이를테면 공동체의 도덕이다. 거기서 도덕규범은 개개인에 대해 초월적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도덕을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에서 생각하는 견해이다. 전자는 합리주의적이고 후자는 경험주의적이지만 어느 것이든 '타율적'이다. 칸트는 여기서도 그것들 '사이'에 서서 도덕을 도덕이게끔 하는 것을 초월론적으로 묻는다. 다시 말하면 칸트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개인의 감정·이해관계를 괄호에 넣음으로써 도덕 영역을 끄집어내는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래틱』,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2013, 170면)라고 설명한다. 칸트는 도덕성의 원칙

칸트가 『실천이성비판』과 『윤리형이상학 정초』 등을 통해 '윤리성의 최상의 원칙'을 찾아서 그것을 확립하고자 했다면, 〈유정〉의 최석은 정임과의 사랑을 통해 '윤리성의 최상의 원칙'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의문은 이광수가 〈유정〉을 통해 '윤리성의 최상의 원칙'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그것이 굳이 사랑의 모습이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칸트가 주장한 윤리의 필연적인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칸트는 윤리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뿐"16)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목적으로 한 사랑이야말로 칸트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와 같이 칸트의 윤리 개념에 바탕해 〈유정〉을 논의한 것으로는 서영채의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영채는 이광수 문학의 전반을 조망한 글에서, 1920년대 이후 강화된 이광수의 도덕주의는 그로 하여금 〈유정〉에서 유려하게 개진된 초자아의 엄격한 명령, 가혹하고 일그러진 칸트식의 지상명령에 직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보편주의, 인격주의, 자율이 그것이다. 보편주의 원칙은 행위의 원칙이 자연 질서와 닮은 보편적 법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인격주의 원칙은 이성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 것을 말한다. 자율은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거기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구,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세창미디어, 2014, 113~121면) 칸트가 주장한 윤리는 박찬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도덕으로도 번역된다. 본고에서는 공동체의 규범에 바탕한 도덕과 구분하기 위하여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6) 박찬구, 앞의 책, 106면.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145~146면)고 주장한다.

최석은 "자기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정념을 잠재우기 위해 시베리아 벌판으로 떠났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엄숙한 지상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그곳에서 자기 내부의 자연과 싸우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다."[17]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이 언급에서 아쉬운 것은 칸트적 윤리의 중요한 대목이 모두 성찰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서영채는 칸트가 윤리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요건 중에서 개인의 감정·이해관계를 괄호에 넣음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의 윤리에서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규범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유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윤리적 성찰의 지점이 매우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칸트적 윤리의 두 가지 측면이 〈유정〉에 모두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꼼꼼한 읽기를 통해 이를 논증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유정〉은 〈무정〉, 〈사랑〉과 더불어 이광수의 연애 3부작으로 일컬어지고는 한다. 특히 〈유정〉은 제목에서부터 〈무정〉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18] 이를 고려하여, 윤리라는 관점에서 〈무정〉과 〈유정〉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유정〉에 드러난 윤리의 양상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17) 서영채, 「민족 없는 민족주의」, 『아첨의 영웅주의』, 소명출판, 2011, 98면.

18) 두 작품의 연관성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유정〉은 그 제목이 상기시키듯이 〈무정〉과도 창작 동기상 내밀한 연관이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다.(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 1999, 224면) 나아가 남성주인공이 죽음으로 자신의 진정서을 확증한다는 결말 처리만 다를 뿐, 사실상 〈무정〉의 플롯-교사라는 설정에서 시작해 로맨스에 뒤이은 '세간의 오해', 그에 대한 침묵과 신속한 사표 처리, 해외로 떠나는 주인공들, 이성애에서 동정으로의 '의미론적 반전' 등-을 얼마간 재활용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는 의견도 있다. (이철호, 「황홀과 비하, 한국 교양소설의 두 가지 표정」, 『상허학보』 37집, 2013, 335~336면)

2.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거부

최석의 행로는 크게 조선에서의 삶과 시베리아에서의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에서의 삶은 공동체의 규범과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최석은 공동체의 규범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최석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규율, 이른바 공동체의 도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대표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남정임을 일종의 수양딸로 맞이해 키우면서 최석의 가족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정임의 엄마가 중국인이고, 최석이 처음 보았을 때 정임이 중국인 말을 하고 중국인 복장이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19] 정임은 최석의 가족이나 조선이라는 공동체에서 타자의 자리에 위치한다. 그런데 최석의 아내는 "정임을 제 친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20]는 사람이었던 것이다.[21] 그렇기에 정임의 우수한 점은 오히려 미움과 시기의 이유가 되고, 이러한 아내의 성격은 최석의 딸 순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공동체의 논리에서라면, 아내와 딸의 미움과 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석은 정임을 자신의 가족과 똑같이 대우한다. 나중 순임이 정임과 함께 시베리아에 가서 새로운 인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친구의 의지 없는 딸인 정임을 당신의 친 혈육인 저와 꼭 같이 사랑하려고 하신

19) "그때의 정임의 나이 여덟살이었소. 정임은 중국 계집애 모양으로 앞머리를 이마에 나불나불하게 자르고 푸른 청옥 두루마기를 입은 소녀였소. 말도 조선 말보다 한어를 잘하고 퍽 감정적인 미인 타입의 소녀였소. 그때에 정임은 나를 부를 때에는 '초이시엔성' 하고 중국 말로 불렀소."(이광수, 「유정」, 『이광수전집』 4권, 삼중당, 1974, 17면.)

20) 위의 책, 18면.

21) 이언홍은 "최석의 아내가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순임이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와 '타자'(남정임)'을 구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언홍, 앞의 논문, 114면)

것이었습니다."[22]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잘 드러난다.

나아가 최석은 남정임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도덕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 사회에 최석과 남정임의 관계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남정임의 일기에는 "C선생이라는 말과 '그이'라는 말"[23]이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남정임의 마음 속에 부모이자 선생인 최석을 향한 존경과 연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최석을 향한 연정은 조선이라는 공동체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최석은 "어린 여자를 농락해서 버려 준 위선자요, 죽일 놈"[24]이며, 남정임은 "남의 아내 있는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와 추악한 관계를 맺은 음탕한 계집"[25]일 뿐이다. 이 두 남녀는 "도덕상 추호도 용서할 점이 없는 죄인"[26]인데, 이 때의 도덕은 조선이라는 공동체의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석은 일순간에 자신의 딸과 동갑인 여자 아이를 건드린 "짐승"[27]이자 "에로 교장"[28]이 되어 이 사회로부터 상징적 죽음을 당하지만, 그는 어떠한 자기변호도 하지 않으며 사회적 낙인을 순순히 받아들인다.[29] 신문에까지 '에로 교장'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태연하게 "집을 떠나자, 조선을 떠나자, 그리고 아무쪼록 속히 이 세상을 떠나 버리자"[30]며 시베리아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심"[31]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결

22) 이광수, 앞의 책, 77면.
23) 위의 책, 35면.
24) 위의 책, 15면.
25) 위의 책, 15면.
26) 위의 책, 15면.
27) 위의 책, 34면.
28) 위의 책, 40면.
29) 조남현 교수는 최석이 어떠한 자기변호나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을 〈유정〉의 결점으로 꼽고 있다.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2』, 문학과지성사, 2012, 178면)
30) 이광수, 앞의 책, 41면.
31) 위의 책, 41면.

심은 집과 조선을 떠나는 행위가 최석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주체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한다. 최석이 집과 조선을 떠나 북만주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가는 것은 공동체의 도덕에 대한 거부와 맞닿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32]

〈유정〉에서 북만주와 시베리아의 풍경은 비교적 상세하고도 장엄하게 묘사되는데, 이 곳은 "공동체와는 가장 거리가 먼 원초적 공간"[33]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최석은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에 정임을 만나기 위해 간 동경의 식당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는 인도인을 발견한다. 다른 아리안족들과 떨어져 있는 인도인을 보며, 최석은 "내 앞에 닥칠 내 신세가 꼭 저 인도인의 신세와 같"[34]다고 느낀다. 이 장면은 최석의 시베리아행이 공동체와의 결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최석이 정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떠나는 것은 공동체의 도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칸트가 거부하는 도덕의 두 가지 모습 중 하나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윤리는 두 가지 도덕을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두 가지는 도덕을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과 개인의 행복(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도덕에 따르는 것이 타율적이기에, 칸트에게 진정한 윤리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사유하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석의 행로는 국

32) 그러한 결심을 하고 신문에 난 기사를 아내에게 보이며, "나는 웃었소. 정말 유쾌하게 웃었소. 내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쾌하였단 말이요."(위의 책, 41면)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집과 조선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시원해하는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다.

33) 서영채는 최석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그가 발견하는 것은 "북만주 벌판의 압도적인 자연 풍경"이며, "자연의 그 위력적인 아름다움은 칸트가 언급했던 숭고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 모든 인위적인 것들과 제도의 구속을 넘어서는 것"(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03면)이라고 설명한다.

34) 이광수, 앞의 책, 45면.

가 공동체라는 일반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편성 속에서 단독자(singular)가 된다는 것"[35]을 의미한다.

최석의 시베리아행에 담긴 의미는 하얼빈에서 만난 오랜 벗 R장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최석이 만난 R장군은 소비에트 장교로서, 부인과 자녀들도 모두 러시아인이다. R장군은 고국이 전혀 그립지 않다며, 자신에게 가장 불쾌한 것은 "고국이라는 기억과 조선 사람"[36]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선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다. 이후에도 R장군의 조선 혐오는 오랫동안 이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이 "나는 조국이 없는 사람일세"[37]라며, 소비에트도 "내 조국이라는 생각은 나지 아니하네"[38]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코즈모폴리탄(cosmopolitan)의 모습이 엿보일 정도이다. 이러한 R장군을 보며 최석은 처음 "놀라운 정도를 지나서 괘씸하기 그지 없었소."[39]라며 격분의 빛을 보이기도 하지만, 곧 "또 생각하면 R이 한 말 가운데는 들을 만한 이유도 없지 아니하오."[40]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하던 최석의 모습으로서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41]

칸트는 윤리가 '자유로워라'라는 정언명령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유란 다른 데에 원인이 없고 순수하게 자발적, 자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의 규범이나 행복주의

35)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2013, 165면.
36) 이광수, 앞의 책, 54면.
37) 위의 책, 54면.
38) 위의 책, 54면.
39) 위의 책, 54면.
40) 위의 책, 55면.
41) 그러나 R장군도 "무의식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조선을 못 잊고 또 조선을 여러 점으로 그리워"(위의 책, 55면)한다는 것과 최석이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만족한다는 것에서, R장군과 최석에게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리주의)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능하다. 자유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여야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는 행동은 타율적이어서 자유일 수 없다. 최석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인 가족은 물론이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의지와 욕망을 지켜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칸트적 정언명령의 첫 번째 조건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자연이 아닌 자유

〈유정〉의 핵심적인 서사의 축은 최석과 남정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벗어남으로써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 사랑은 일종의 투쟁인데, 그것은 애욕과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전이다. 이것은 칸트가 거부한 또 하나의 도덕적 입장과 연결된다. 칸트가 공동체의 도덕과 더불어 비판한 또 하나의 도덕은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도덕을 생각하는 견해(행복주의·공리주의)이다. 이 관점에서는 도덕이 결국 '자연'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2] 그것은 자연적 인과성에 '나'를 맡기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로워지라'는 정언명령에 따른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애욕과의 투쟁은 '자연'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최석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지만, 동시에 최석이 공동체를 버린 것이기도 하다. 시베리아행은 자신의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

42)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가장 비판한 것은 '행복주의'(공리주의)이다. 그가 행복주의를 물리친 것은 행복이 물질적(physical) 원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타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형이상학적(metaphysical)이며, 칸트가 지향하는 형이상학의 재건이란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80면)라고 주장한다.

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최석은 공동체의 규범 따위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그의 곁에는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달려올 정임이 존재한다.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관점에서라면 인간 안의 가장 강력한 '자연'인 애욕에 따르는 것은 가장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베리아의 원시림 속에서 최석과 정임의 동거로 인해 위해를 당할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석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한다. 이것은 그러한 애욕이 최석의 이성과는 무관한 아니 거의 반대편에 놓인 본능적 욕망에서 발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가 '자유로워지라'는 의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칸트의 윤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석의 정임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목적이나 결과도 상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자유라는 정언명령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은 최석이 자기 안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본능, 욕망, 감정 등을 이성으로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안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본능, 욕망, 감정이라는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석은 처음 "나는 사십 평생에 일찍 외입이라는 윗자나 연애라는 연자도 모르는 사람"[43]이며, "내 의지력과 내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눌러 버"[44]렸다고 자부한다. 최석은 스스로 "나는 정으로 행동한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45]으로 자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정임을 통해 최석은 열정의 그 강력한 힘을 깨닫고[46], 결국에는 그 열정과 맞서 싸우다가 목숨

43) 이광수, 앞의 책, 21면.
44) 위의 책, 21면.
45) 위의 책, 57면.
46) 최석은 "인생의 모든 힘 가운데 열정보다 더 폭력적인 것이 어디 있소?"(위의 책, 50면), "우주의 모든 힘 가운데 사람의 열정과 같이 폭력적 불가항력적인 것은 없으리라."(위의 책, 50면), "사람의 열정의 힘은 우주의 모든 신비한 힘 가운데 가장 신비한 힘이 아니겠소?"(위의 책, 51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열정

까지 내놓게 된다.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에 정임과 가볍게 포옹할 때, 최석은 "영어로 엑스터시라든지, 한문으로 무아(無我)의 경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하였소, 나는 사십 평생 이러한 경험을 처음 한 것이오."[47]라고 고백할 정도로 흔들린다. 이 순간은 구체적인 삶의 시공에서 최석의 본능적 욕망과 이성적 당위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48] 살아왔으며, 자신에게는 "의지력과 이지력밖에 없는 것 같았"[49]다고 생각했던 최석은 시베리아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자연'과 '자유'의 투쟁을 경험한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강제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본능적 욕망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에 비례해 자유를 향한 명령의 강도도 더욱 거세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싸움에서 본능적 욕망과 이성적 당위는 각각 "반란"[50]과 "반란을 진정한 개선의 군주"[51]로 비유될 정도이다.

최석을 이토록 처절하게 열정과 맞서 싸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명령으로 지칭되는 절대적인 당위이다. "그러나 내 도덕적 책임은 엄정하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느냐. 나는 이 도덕적 책임의 명령-그것은 더 위가 없는 명령이다-을 털끝만치라도 휘어서는 아니 된다."[52]라는 최석의 고민이나, "그렇지마는! 아아 그렇지마는 나는 이 도덕적 책임의 무상 명령의 발령자인 쓴잔을 마시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53]라는 최석의 생각에는 칸트적 명령의 모습이

은 능히 제 생명을 깨뜨려 가루를 만들고 제 생명을 살라서 소지를 올리지 아니하오?"(위의 책, 51면) 등의 말을 자주 한다.

47) 이광수, 앞의 책, 46면.
48) 위의 책, 68면.
49) 위의 책, 68면.
50) 위의 책, 69면.
51) 위의 책, 69면.
52) 위의 책, 49면.
53) 위의 책, 50면.

너무나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명령은 칸트가 주장한 윤리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 불완전한 의지, 즉 완전하게 선하지는 않은 의지(인간의 의지)가 객관적인 법칙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객관적인 원리의 표상은, 그것이 의지에 대해 강요적인 한에서, (이성의) 지시명령(Gebot)이라 일컬으며, 이 지시명령의 정식을 일컬어 명령(Imperative)이라 한다.[54]

>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서 근저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 및 그 행위로부터 결과할 것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 및 그로부터 행위 자신이 나오는 원리에 관여한다. 행위의 본질적으로-선함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이 명령은 윤리성(Sittlichkeit)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55]

그러나 최석 안의 자연은 너무도 강력하다. 나중 친구N에게 남긴 일기장에는 예수, 싯다르타, 스토아 철학자의 의지력으로도 애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한탄이 등장할 정도이다. 자신이 "애욕 덩어리로 화해 버린 것 같다"[56]고 느끼며, "나는 하루 바삐 죽어야 한다"[57]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정임에 대한 본능적 욕망이 끓어오를수록 최석이 구현하는 윤리의 성격은 보다 뚜렷하게 부각된다. 칸트는 "이 의무 개념은 비록 어떤 주관적인 제한들과 방해들(욕망) 중에서이기는 하지만, 선의지의 개념을 함유하는바, 그럼에도 이 제한들과

54) 칸트, 앞의 책, 116면.
55) 위의 책, 123면.
56) 이광수, 앞의 책, 85면.
57) 위의 책, 86면.

방해들(욕망)이 그 개념을 숨겨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대조를 통해 그 개념을 두드러지게 하고, 더욱 밝게 빛나게 해준다."[58]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석이 만주에서 만난 R부부에게 그토록 불쾌감을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흥안령 산맥 근처에서 조선 동포인 R부부를 만나고 그들의 집까지 초대되어 여러 가지 호의를 제공받지만, 최석은 그들을 향해 엄청난 불쾌감과 반감을 표출한다. "R부처의 생활에 대하여 일종의 불만과 환멸을 느"[59]낀 최석은, R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관에서 잠을 자고 R을 다시 대면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나중에 차가 R의 집을 지날 때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R부부의 집을 외면할 정도이다.

이러한 거부는 R부부의 모습이, 최석이 목숨을 걸고 피하고자 하는 자신과 남정임의 관계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즉 R부부는 본능적 욕망에 자신의 자유를 양도했을 때의 모습을 실연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R은 자기 부부가 최석이나 남정임과 비슷한 처지였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최선생이 당하신 경우와 꼭 같은 경우를 당하였거든요."[60]나 "최 선생 처지가 나와 꼭 같단 말요. 정임의 처지가 당신과 같고"[61]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R과 R의 부인은 본래 사제지간이였으나 반대파가 둘 사이를 모함하는 소문을 내는 바람에 흥안령 산맥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R부부는 동반자살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키스를 나누고는 "눌리고 눌리고 쌓이고 하였던 열정이 그만 일시에 폭발"[62]하는 경험을 한다. 이들 부부는

58) 칸트, 앞의 책, 84면. 박찬구도 칸트는 "성향이나 경향성과 같은 주관적 원인들이 객관적 원칙에 반하면 반할수록 그 도덕적 명령의 숭고함과 위엄은 더 높아지고 법칙의 강제력과 타당성은 더욱 확고해진다고 주장"(박찬구, 앞의 책, 104면)했다고 설명한다.
59) 이광수, 앞의 책, 67면.
60) 위의 책, 60면.
61) 위의 책, 62면.

칸트적 윤리라는 관점에서는 '자연'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패배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석이 "정임을 여기나 시베리아나 어떤 곳으로 불러다가 만일 R과 같은 흉내"[63]를 내는 것에, 진저리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더군다나 R부부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단독자로서의 진정한 윤리를 개시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자신들의 방에다 조선 지도와 단군의 초상을 걸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 배례(拜禮)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선 사회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지금 "마음 큰 자손을 낳아서 길러 볼까 하고-이를테면 새 민족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둘째 단군, 둘째 아브라함이나 하나 낳아 볼까 하고"[64] 궁리한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흥안령 가까운 무변광야에서 마음 큰 인물을 낳아 우리 민족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새 단군"[65]을 키우고 싶은 것이다. 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자유의 승리, 즉 칸트의 윤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부정해야 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R부부는 최석의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에 최석은 끝내 정임과 대면하지 못하고 죽는다. 화자인 N은 "최석이가 자기의 싸움을 이기고 죽었는지, 또는 끝까지 지다가 죽었는지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어서 알 도리가 없었다."[66]고 말한다. 이것은 본능적 욕망과 당위적 이성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까지 이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최석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순간에 그의 의식에 떠오던 오직 하나가 정임이었으리

62) 위의 책, 64면.
63) 위의 책, 67면.
64) 위의 책, 60면.
65) 위의 책, 66면.
66) 위의 책, 90면.

라는 것"[67]이다. 그렇다면 끝내 최석은 정임을 향한 사랑을 지켜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칸트적 의미의 윤리도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가면서까지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정〉은 최석이 마지막에 기거하는 방에 정임이 혼자 머물고, N이 정임이 세상을 떠나면 최석과 나란히 묻어 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홍안령 근처에서 만난 R부부를 보면서 최석이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석은 북만주에서 만난 R부부가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한다. 그것은 바로 본능적 욕망에 저항하며 윤리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최석은 "그 두 별 무덤이 정말 R과 그 여학생과 두 사람이 영원히 달치 못할 꿈을 안은채로 깨끗하게 죽어서 묻힌 무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렇다 하면 내일 한번 더 가서 보토라도 하고 오련마는."(위의 책, 67면)이라고 아쉬워했는데, 최석과 정임은 두 별 무덤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4. '무정'에서 '유정'으로 - 헤겔에서 칸트로

한국문학사에서 최석은 칸트의 의발(衣鉢)을 이어받을만한 최고의 수제자이다. 그는 '자유로워라'라는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칸트적 윤리를 그야말로 발본적인 지점에 서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신이 아닌 인간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행위나 주체는 과연 가능할까?[68]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가 자유를 사전적(事前的)

67) 위의 책, 90~91면.

68) 칸트는『순수이성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율배반을 제시한다.
정명제 - 자연법칙을 따르는 인과성은 그것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현상이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인과성이 아니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또한 자유

차원이 아닌 사후적(事後的) 차원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사전의 자유란 없으며, 자유는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69] 실제로는 자유(자기 원인)같은 것은 없으며 모든 행위는 원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는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자기가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곳에 존재"[70]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자유로워라'는, 의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석의 죽음은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결국 칸트는 "자유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행위에서 자신의 인과성을 의식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한, 즉 의지를 갖춘 존재로 생각하는 한, 자유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71]한 것인데, 최석은 경험적으로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실천해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 귀결이 시베리아에서의 죽음인 것은 인간인 최석에게는 하나의 필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최석의 과도한 윤리적 모습은 〈무정〉에 나타난 과도한 공동체 지향성의 뒤집어진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무정〉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리며 친소관계를 반복하던 형식, 선형, 영채, 병욱 등이, 결국 작품의 마지막 이르러 형식의 연설에 감격하여 완벽한 한 몸이 된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들의 육체는 실제적 반응을 나타낼 정도이다. 형식의 민족 계몽을 "누가ㅎ나요?"[72]라

에 의한 인과성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명제 - 무릇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서의 모든 것은 자연법칙에 따라서만 생기한다.

제3이율배반으로서 알려진 상반된 두 명제에 대해 칸트는 그것들이 동시에 양립한다고 말한다. (칸트,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옮김, 2006, 아카넷, 243면)

69)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이신철, 도서출판b, 2013, 172~174면.

70) 위의 책, 182면.

71) 박찬구, 앞의 책, 142면.

72) 이광수, 〈무정〉 124회, 『매일신보』, 1917.6.12.

는 질문에 "세쳐녀는 몸에쇼름이끼친"[73]다. 이어서 형식은 자신들이 유학 가는 차표에는 조선 사람들의 땀이 들어 있다는 말을 하고는 스스로 "몸과고기를 흔"[74]든다. 이에 "셰쳐녀도 그와ᄀᆞᆺ히몸을흔들엇다"[75]고 표현된다. 이처럼 민족주의 담론에 감동한 이들은 "너와 나라는 차별이업시 왼통 ᄒᆞᆫ몸한마음"[76]이 되고, 결국에 네 명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기차 안에서 느꼈던 이들의 '온통 한몸, 한마음이 된 듯'한 기분이야말로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서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77] 이러한 〈무정〉의 결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나며, 진정한 자유와 인격은 공동체(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헤겔의 주장을 연상시킨다.[78]

이렇게 볼 때, '무정/유정'이라는 제목의 분명한 상반성은 뚜렷한

---

73) 이광수, 〈무정〉 124회, 『매일신보』, 1917.6.12.
74) 이광수, 〈무정〉 124회, 『매일신보』, 1917.6.12.
75) 이광수, 〈무정〉 124회, 『매일신보』, 1917.6.12.
76) 이광수, 〈무정〉 124회, 『매일신보』, 1917.6.12.
77) 〈무정〉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인물이 하나로 결합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이경재, 『민족문학사연구』 54호, 2014년 4월, 266~277면)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78) 헤겔은 개인과 사회 간에는 통일된 지평이 있으며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난다고 본다. 헤겔의 이런 차원을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인륜성이다. 헤겔은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인격을 지닌다'와 같은 주장을 사회계약론자처럼 당연하게 전제하지 않는다. 헤겔에게 자유와 인격의 의미는 인륜적 공동체의 삶 속에서 법적, 도덕적 장치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가운데서 분명해지고 외적 장치를 통해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자유와 인격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권과 인격권도 확립된다.(김성호·이정은, 「개인과 사회」,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 서양근대철학회 편, 창비, 2004, 347면) 헤겔은 궁극적으로 인륜성을 국가법과 제도에 담겨 있는 국가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헤겔에게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은 '좋은 법률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가족과 시민사회는 이미 국가 속에 있다. 가족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 또한 국가에서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개인에게 국가는 전제이면서 결과이므로, 국가와 국가체제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사회계약론자와 달리, 헤겔의 국가는 전제와 증명을 통해서 필연성과 보편성이 정립된 이성적인 것이다. 헤겔은 국가와 국가정체를 '신적인 것' 내지 '항구적인 것'이라 일컫기도 한다.(위의 책, 348~349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정〉이 결국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무화를 통해 공동체라는 절대적 지향점을 덩그러니 남겨 놓았다면, 〈유정〉에서는 본능이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윤리적 존재를 시베리아 원시림 속에 강렬하게 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헤겔에서 칸트로의 변모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매일신보』, 1917.1.1-6.14.

이광수,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74.

2. 논문

강헌국, 「이광수 소설의 인류애」, 『현대소설연구』 57집, 2014, 226면.

김성호·이정은, 「개인과 사회」,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 서양근대철학회 편, 창비, 2004, 347면.

김소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이화어문논집』 27집, 2009, 117~138면.

김용하, 「신경증자의 발견과 탈 나르시시즘 주체의 구제」, 『국제어문』 49집, 2010.8, 113~136면.

김진영, 「삶의 텍스트, 소설의 텍스트-이광수와 톨스토이」, 11~49면.

박혜경,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계몽의 기획:이광수의 <유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3집, 2007, 247~248면.

서영채, 「죄의식, 원한, 근대성: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 52~56면.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집, 2016, 223~256면

서희원, 「공동체를 탈주하는 방랑과 죽음으로 귀환하는 여행」, 『한국문학연구』 40집, 2011, 225면.

신영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낭만성의 관련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9, 123면.

윤홍로, 「춘원 이광수와 <유정>의 세계」, 춘원연구학보, 2008, 164면.

이언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집, 2015, 109~133면.

이철호, 「황홀과 비하, 한국 교양소설의 두 가지 표정」, 『상허학보』 37집, 2013, 335~336면.

임보람, 「<유정>에 드러난 사랑과 욕망의 문제 연구」, 『우리말글』 69집, 2016, 228~246면.

임선애, 「근대 남성의 사랑 방식:이광수의 <유정>, 『인문과학연구』 8집, 2007, 161~179면.

3. 단행본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 1999, 224면.

박찬구,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세창미디어, 2014, 113~121면.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103면

_____, 「민족 없는 민족주의」, 『아첨의 영웅주의』, 소명출판, 2011, 98면.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사 2』, 문학과지성사, 2012, 178면.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인간사, 1968, 248면.

柄谷行人, 『윤리 21』, 송태욱 옮김, 사회평론, 2001, 6면.

_____, 『트랜스크래틱』,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b, 2013, 170면.

Kant, Immanuel,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145~146면.

_____,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옮김, 2006, 아카넷, 243면.

<Abstrct>

Kant's ethics in Lee Kwang-su's『Yoo Jeong』

Lee, Kyung-Jae

This article basically seeks to examin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will and passion, or reason and emotion, of Choi Seok in the context of Kant's alleged ethics. Kant saw that ethics can only be realized if it is faithful to the covenant of freedom, and can be embodied by denying community norms or happiness (utilitarianism). If a person follows the norms of the community, it is imperative that it is not free. In a utilitarian way of thinking, action is not free because it is regulated by physical desires or other people's desires. Choi Seok shows the approach to Kant's ethics by denying the norms of community, his instincts and desires. Choi Seok rejects the morality of the so-called community, the rule for sustaining the community. He does not give up his love for his office until he leaves family and Chosun, which is a representative category of community. Next, Choi Seok is faithful to Kant 's critique of the denial of happiness (utilitarianism) through the struggle between lust and reason. Another item Kant criticized with the morality of the community is the view that considers ethics in terms of individual happiness or interest. This view entrusts me to natural causality, which is far from being moral in accordance with the citation of the covenant to be free. Thus, Choi Seok-suk's battle with his lust can be summarized as a fight to defend

'freedom' against 'nature'. In the end, Choi Seok seeks victory in this struggle by overcoming the lust for the reign. He embodies Kantian ethics until he pays for his life. The excessive ethical aspect of『Yoo Jeong』can be understood as an overturned view of excessive community orientation shown in『Moo Jeong』』. In『Moo Jeong』, the form, linearity, and reverberation which are repeated by various emotions and repeating the relation of the pros and cons, eventually ends with ending the work and becoming a perfect body by being impressed by the speech of the form. The conclusion of such a moral virtue is reminiscent of Hegel, in which human beings are born as a community from birth and true freedom and personality are only possible within a community. In the end, it is not only free from instincts and desires, but also from the norms and morals of the community, as well as being free from ethical existence In the Siberian primeval forest. However, in the Kantian ethics of『Yoo Jeong』, Hegel's shadow is structurally adult. It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basic narrative structure of this work. This work is composed of a complex-class structure. Through this narrative structure, Choi Seok's life is constantly interpreted and evaluated through 'I'. Thes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are community-oriented. This narrative structure of『Yoo Jeong』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Lee Kwang Soo 's Hegelian worldview, which is based on the community's true value.

Key words: Lee Kwang Soo, Yu Jung, Kant, Ethics, Community, Freedom, Nature

투 고 일 : 2017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